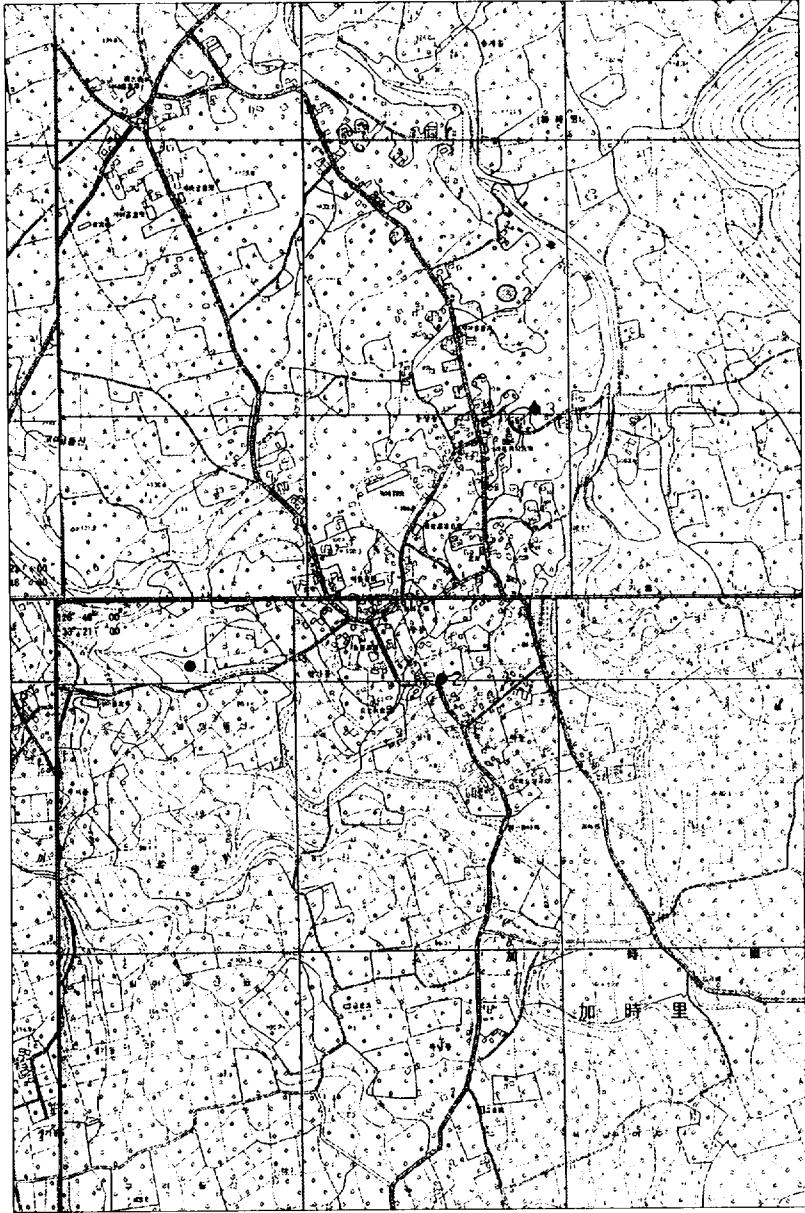


■ 연지학술조사보고

南濟州郡 表善面 加時里

2002년 8월 23일 ~ 8월 25일 조사

● 사회 배경 / 방언 / 민요 / 설화 / 신앙 ●



社會背景

차 례

- | | |
|----------|----------|
| 1. 자연 환경 | 4. 사회 환경 |
| 2. 설촌 유래 | 5. 교육 환경 |
| 3. 지명 유래 | |

1. 자연 환경

가시리는 그 지세가 한라산 동남쪽으로부터 태평양과 연(沿)해 있는 표선리 백사장을 향해 원만한 사면(斜面)을 이루며, 많은 기생 화산을 끼고 드넓은 초원지대가 펼쳐 있고 울창한 수목속에 묻힌 듯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부락이다. 또한 붉은 오름, 거문오름, 구두리, 영아리, 설오름, 병곳오름, 가시오름 등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표선면 소재지인 표선리에서 북서쪽으로 7km 지점인 해발 100m~120m 지대에 위치한 가시리는 본동(동상동, 중동, 동하동) 외에 6개의 자연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계(疆界)를 살펴보면, 북으로는 조천읍과 접하고 서쪽으로는 남원읍의 동부경(東部境)과 동쪽은 성읍리, 동남쪽 하천리, 그리고 남쪽은 세화 1리, 서남쪽은 토산 1리와 접하고 있다. 이들 부락과의 거리는 가시리 중앙지에서 성읍리와 5km, 세화 1리와 4km, 토산 1리와 3km, 그리고 해안선(海岸線)까지는 6km나 된다. 가시리는 표선

면 10개리 중에서 성읍1·2리와 토산1리와 함께 중산간 주변부락에 해당된다.

남제주군 동남부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써 서로는 남원읍, 북으로는 북제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시리는 표선면 전체면적의 41%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임야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750여ha에 이르는 가시공동목장이 소재해 있어 축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감귤과 콩, 무, 고구마 등을 주로 재배하는 복합영농의 형태를 이루고 있고, 중산간 도로가 마을 안을 통과하고 있는 순환버스, 중산간버스, 동부산업도로 노선 버스운행으로 중산간이면서도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2. 설촌 유래

1) 가시오름(가시리)

가시오름의 설촌시조는 청주한씨 서제공한천으로 알려져 있다. 공은 지금으로부터 600여년전 고려말의 공신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추서하였으나 1392년 7월 고려의 멸망과 더불어 이성계의 조선개국에 불복,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다 결국 제주도로 유배당하는 비운을 맞게되었다. 부인과 두아들을 거느리고 개성을 출발 정읍, 해남을 거쳐 바다를 건너 성산포에 도착하게 된다. 이후 여러 곳을 돌아보던 중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정착하고 '가시오름'이라고 이름하였다 한다. 정착을 하게 된 배경에는 땅이 비옥하고 주위를 둘러싼 산세가 아름다워서였다고 한다.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가시오름은 가사장삼형으로 마치 범복을 입은 승려와 같다하여 "가사봉" 또는 마을 이름과 같이 "가시봉"으로도 불리었다. 서제공이 처음으로 정착 집을 지어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뒷밭(속칭 큰 뒷밭)에는 한씨 문중

에서 사당을 지어 입도조 서제공을 기념하고 있다.

2) 안좌오름(안좌리)

가시오름이 설촌되기 약 백년전에 변씨가 안좌오름의 와개우연에 정착, 설촌하였다고 예전부터 전해왔으며 지금도 그 밭에서 기와조각들이 출토되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변씨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연대나 이름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좌오름이라 불리게 된 것은 마을 뒤쪽에 있는 지금의 병곳오름이 기러기가 등지에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하여 안좌(雁坐)오름이 되었다고 전해지며 후에 안좌리가 설촌되면서 지금의 안좌오름으로 불리게 된다.

가시오름(가시리)과 안좌오름(안좌리)은 설촌되었으나 마을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다. 가시오름이 설촌되어 백여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3. 지명 유래

가시리와 안좌리는 서로 다른 마을이었고 마을의 수장인 이장도 따로 있어 해방이전까지는 마을 운영도 따로 하여 오다가 1946년도제실시와 함께 통합되어 지금의 가시리로 거듭나게 된다.

가시오름의 동내(東川)와 서쪽을 흐르는 셋내가 합쳐지는 가시천의 동쪽일대에 “새가름”동네가 형성되고 뒤이어 “두리물”동네, “폭나?루”동네, “영머리왓”동네, “생기동”, “신정동”이 생겨나게 되었다.

1) 새가름 동네(新設洞)

지금으로부터 약 5백년전 '한윤광'이라는 사람이 속칭 '윤광이우연'에 정착하면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오씨, 강씨, 김씨 등이 뒤이어 정착하게 됨으로써 새로 생긴 동네라는 의미에서 '새가름 동네'라 불리게 되었다. 본동의 동쪽을 흐르는 동내(東川)와 서쪽을 흐르는 서내(西川)가 합쳐지는 가시천의 동쪽 일대에 10여 만평의 평원지대에 부락이 형성되었다.

이곳은 성읍에서 서귀포에 이르는 도로에 접하여 있어 교통상의 요지임과 동시에 곡창지대였던 곳이므로 점차 확장되어 50여호에 이르렀다. 그러나 4·3사건이후 부락이 복귀되지 않아 지금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지대의 이름은 여전히 '새가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2) 두리물 동네(斗水洞)

본동의 서쪽을 흐르는 서내(두리물내)를 끼고 형성된 것은 약 120여년전 원경이 집터에 고 원경이가 처음으로 정착하였고, 그 뒤 송씨가 정착하였으나 북군으로 이주하였다. 그후 오씨가 본동에서 이주하였고, 뒤이어 강씨, 정씨, 김씨, 안씨 등이 이주 정착하므로 동리가 형성되어 '두리물동네'라 부르게 되었다.

3) 폭남마루 동네

약 200년 전 가름(본동)에서 남쪽에 위치한 폭낭골에 10여 가구가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지대는 홍수 때마다 하천이 범람하여 급수사태가 빈번하였으므로 대부분 주민들이 타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본동의 현씨가 옮겨와 살게되고 뒤이어 강씨, 오씨, 김씨 등이 폭남마루를 중심으로 인근 종서물과 생강이골까지 분포되어 살기 시작하여 30여호가 살게되어 '폭남마루 동네'가 이루어지게 된다.

4·3사건으로 동리는 폐허가 되었으나, 1955년부터 주민들이 복귀하기 시작하여 '폭남마루동네'를 재건하였다.

4) 영머리왓동네(龍頭洞)

가시리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영머리왓 동네'는 두리물 동네가 형성되고 30년 후 '강궁이마루' 동남쪽에 오씨가 들어와 살게 되면서 형성되었다. 뒤이어 송씨, 강씨, 김씨 등이 타 지역에서 이주해옴으로써 취락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지금으로부터 약 90여년전 새가름동네 등 타지역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이주함으로써 동네가 형성되어 '영머리왓 동네'라 부르게 되었다.

5) 생기동(生氣洞)

1962년 정부에서 4·3사건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속칭 '정언이 목장'에 13호의 개량주택이 건설되어 집단 부락을 이루었다. 여기에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농기구 및 비용이 지원되어 자립의 기반구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동네 이름은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생기동'이라 불려졌다.

6) 신정동(新正洞)

1979년 3월에 부락구조 개선마을이 본리에 배정되어 정부의 지원으로 속칭 '뒷병뒤'에 16호의 현대식 주택이 건축되어 쾌적하고 아담한 문화촌을 이루고 '신정동'이라 이름하였다.

4. 사회 환경

자연부락이 6개로서 취락형성이 밀집되어 있지 않고 방대한 면적에 조성되므로 인하여 행정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면 전체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농로포장을 등이 타 마을에 비해 낮아 농업경영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형편이고 중·고등학교 및 시장, 병원, 문화시설 등은 면소재지인 표선리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이용하고 있다.

가시리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로서 주민들이 주 경제적 기반은 농업으로 감귤, 콩, 당근, 고구마 등 밭작물과 일부 농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축산과 함께 복합 영농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최근 들어 주된 농가수입이 감귤로 바뀌고 있는데 총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감귤시설 재배면적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감귤수익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700여ha에 이르는 제동목장, 정석항공관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갖추어 관광자원화될 시 관광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5. 교육 환경

1) 서당

가시리에 서당이 언제부터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설촌 시조인 한천이 지방 자제를 교육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서당(書堂)밭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설촌 초기부터 서당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제시대 초기부터 일부 한문 서당 교육에 대한

반성과 신교육운동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개량서당이 생겨나게 된다. 가시리 1879번지(지금의 리사무소)에 있었던 향사에 수성사숙, 소성서당이라는 이름의 서당이 있었다. 수성사숙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존속되었다고 하나 이미 1929년부터 개설되어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2) 유치원

1972년에 지금의 리사무소부지(전 리사무소 2층)에 마을 자체적으로 새마을 탁아소가 처음으로 개설되어 취학전 아동들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교사 및 예산상의 문제로 몇 년 유지되지 못하고 폐원되었다. 1980년 제5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유아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 주관 하에 공립유치원이 설치되기에 이르면서 1981년 3월 31일에 가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설립, 개원되어 취학전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치원은 초등교육이전의 예비아동교육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다 한마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1981. 2. 4 - 「가시국민학교」병설유치원 설립인가(1학급)
- 1981. 3. 10 - 「가시국민학교」병설유치원 개원
- 1985. 3. 5 - 서귀포교육청 지정과제 시범 유치원 운영보고
- 1989. 10. 21 - 새마을 복지회관에서 본교 원사로 옮김
- 2001. 2. 10 - 제20회 졸업(원아 9명)

3) 초등학교

가시초등학교는 일제시대에는 학교건립이 인가되지 않았으나, 광복 후 주민들의 학교 건립추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결국 가시

국민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4·3의 영향으로 폐교되었다. 그 이후 1950년 화산초등학교 가시분교장으로 개교되고 1960년 가시초등학교 복구 인가로 개교를 볼 수 있었다. 가시초등학교는 1946년에 설립되어 폐교와 개교의 반복이라는 설움속에서도 55년동안 가시리 주민들에 의해 이어져오면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교육의 산실이었다. 그러나 가시분교는 2001년 마지막 졸업생을 배출하고 폐교되면서 화산초등학교와 하천초등학교와 함께 한마음초등학교로 통합되기에 이르렀다.

- 1946. 9. 1 - 가시공립초등학교 설립인가(6년제)
- 1946. 12. 5 - 개교(표선면 가시리 1780번지)
- 1948. 11. - 4·3사건으로 학교 전소(표선초등학교)
- 1949. 3. 10 - 제주도지사로부터 폐교 인가
- 1950. 6. 2 - 화산초등학교 가시분교장 인가
- 1960. 4. 1 - 가시초등학교 설립인가
- 1960. 9. 1 - 개교 2학급인가, 3학급 편성 운영
- 1961. 1. 25 - 공립학교설립 인가(병설)
- 1962. 2. 1 - 예산난으로 폐교
- 1962. 2. 16 - 제1회 졸업생 배출, 16명(남9, 여7)
- 1971. 10. 1 - 현 부지(가시리 1924로 학교 이설)
- 2001. 2. 16 - 제40회 졸업(총 1,384명)

方 言

차 례

1. 가옥	7. 밭 지명
2. 의복·옷감·장신구	8. 계절·기간
3. 가구·기구	9. 바람
4. 신체부위	10. 음식·행사
5. 호칭	11. 형용사
6. 동물·식물	12. 기타

가시리는 중산간 지역으로써 축산과 함께 복합 영농의 형태를 이루고 있어서 농기구의 경우 축산과 관련한 단어들이 발달해 있으며, 제주 특유의 질박한 사투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는 반드시 가시리만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조사과정에서 가시리 특징적인 단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쓰이는 방언을 정리하면서 농기구와 농사에 사용되는 가축, 의복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1. 가 옥

<u>방언형</u>	<u>표준어</u>
이문간	대문간
상방	마루

고팡	곡간(광)
정지	부엌
낭간	난간
굴묵	화고(아궁이)
못똥	문도(입구)
백부름	벽
공쟁이	못, 걸이
간지	옷걸이
부섭	화로
시렁	벽장
물팡	물허벅 놓는 돌선반
지들팡	변소의 디딤돌
동넙거리	동넙집
서넙거리	서넙집
알력거리	아래쪽 집
우넙거리	위쪽 집
올랫거리	올래와 가까운 집(결채)
모커리	모로 앉은 집
박거리	바깥 집
쇠막(쇄막)	외양간
불치막	거름을 넣는 작은 집
막사리(마가지)	자그마한 집(오막살이)
통시, 도통	변소
방상집(괘당집)	친족집
식개집	제사집
상사	향사(리사무소)

2. 의복(衣服) · 옷감 · 장신구(裝身具)

<u>방언형</u>	<u>표준어</u>
정뱅이	바지
중이	여자 바지
소중이	여자 속옷
갈적삼	푼감으로 물들인 옷저고리
갈정뱅이(갈중이)	푼감으로 물들인 바지
미녕	무명
인주	인조견
질목	보선
쫓개	속옷
빙것	비올 때 쓰는 모자
대비	양말
주멩기	주머니
후루메	두루마기
옷ㄱ슴	옷감
휘양	할아버지들이 쓰던 모자
고사리	머리에 두르던 수건
몽태이	지팡이
우장	짚으로 만든 비옷
초신	짚신

3. 가구(家具) · 기구(器具)

<u>방언형</u>	<u>표준어</u>
베클	베틀

보리클	보리 훑는 농기구
도깨	도리깨
ㄹ레	맷돌
몰방애	연자방아
남방애	나무방아
방앗귀	방앗대
서답마께	빨래 방망이
골채	삼태기
구덕	큰 광주리
차룡(채반지)	광주리
밥당석	도시락
도ㄹ리	여물통
오가리	김치나 장을 담글때 쓰는 단지
낭푼이	양푼
종재기	종지
배(짐배)	밧줄(짐을 질 때 쓰는 밧줄)
질빵	멜방
둑베	도마
부지땡이	부지깅이
ㄴ람지(노램이)	노적을 덮는 띠로 엮은 이엉
시렁	이불장
남도고리	나무로 만든 그릇
푸는체	키
얼맹이	대나무로 엮은 굵은 채
솔박	되
되약새기	솔박보다 작은 되
브름구덕	(종이나 형겹으로 바른)대바구니
ㄸ치	도끼

골갱이	호미
메호미	장호미
던드렁마께	큰 목재 방망이
맥	망태기
살래	찬장
등피	등잔
잠대	쟁기
솔각	불을 붙이는데 사용하던 못생긴 소나무 가지
질메	길마
석(가리석)	소 매는 밧줄
장태	사기로 만든 세수대야
호랭이	줄을 풀 때 쓰는 농기구
비치락	빗자루
ㄱ새	가위
소수제	검질을 문쳐 설거지할 때 사용
상뼈	행주
간지	옷을 걸던 도구
지세허벅	검은 색 허벅

4. 신체부위(身体部位)

<u>방언형</u>	<u>표준어</u>
대갱이	머리
허운데기	머리채
임덩이(맛박)	이마
눈망덩이(눈까리)	눈
주둥이(주둥페기)	입

턱가리(알아구리)	턱
꿇똥배기(귀창)	꿇등
볼타가리(빠망탱이)	뺨
세바닥	헛바닥
목암지(야가지,야개기)	목
짱(뺨)	뺨
풀따시	팔뚝
즌등이	허리
가슴패기	가슴패기
등머리짱	등뺨
가달	다리
홀목	팔목
손뺨데기	손
발뺨데기	발
뺨또롱	뺨뺨
뺨때기	뺨
젓통	젓통
젓고고리	젓꼭지
옆갈리	옆구리
갈비뺨	갈비뺨
오모손이	윗 배
잠지패기	엉덩이
등어리	등
정강머리	정강이
썰개	썰개
북배기(북부기)	허파

5. 호칭(呼稱)

<u>방언형</u>	<u>표준어</u>
아방	아버지
어멍	어머니
하르방	할아버지
할망	할머니
다슴아덜	의붓아들
다슴똥	의붓딸
씨아방	시아버지
씨어멍	시어머니
비바리	처녀
출람생이	성급한 사랑
삼촌조케	삼촌조카
침바치	침을 놓는 사람
두가시	부부
족은아덜	작은아들
메누리	며느리
가시아방	장인
가시어멍	장모
동세	동서
예펜(예칭)	여편네
스나이	사나이
두린아이	어린아이
사농바치	사냥꾼
핑바치	핑 사냥꾼
괘당(방상)	친족

6. 동·식물(動·植物)

<u>방언형</u>	<u>표준어</u>
짐싱(짐승)	짐승
부랭이(밭갈쇠)	숫소
쇠	소
암쇠	암소
송애기	송아지
몽생이	망아지
강생이	강아지
돛(도야지, 도새기)	돼지
고냉이	고양이
비아기(빙애기)	병아리
쟁이	계
지다리	두더지
베엠(베엄이)	뱀
지냉이	지네
두체비(두께비)	두꺼비
재열	매미
계엄지	개미
쟁생이	쥐
생이	새
노리	노루
구쟁기	소라
귀	성계
검질	김
늑물	나물

낭	나무
낭께기	나무가지
낭꺼죽	나무껍질
곡석	곡식
고고리	이삭
조코고리	조 이삭
강매기	알을 털어 낸 빈 이삭
콩꼬질	빈 콩깍지, 빈 이삭
출	꿀
ㄱ시락	보리 타작후의 찌꺼기
가시자왈	가시덤불
콱데사니	마늘
패마농	파
쇠우리	정구지

7. 밭 이름

<u>방언형</u>	<u>표준어</u>
보리왓	보리밭
조팻	조밭
출왓	꿀밭
작지왓	자갈밭
드르(돌레)	작은 경작지
머들	돌무더기
바령밭	저녁에 소와 말이 용변을 하도록 하여 기름지게 만든 밭
마루	마루

빌레	암반지대
우영	뜰, 정원
골	골짜기
드르	들
곶	산의 천연림

8. 계절(季節) · 기간(期間)

<u>방언형</u>	<u>표준어</u>
ㄱ슬(ㄱ을)	가을
저슬	겨울
아신날	전날
뒤틀날	이튿날
요 흐르기	요 며칠전
흔들내낭	한달내내
저슬내낭	겨울내내
여름내낭	여름내내
해차귀	양지 바른 곳

9. 바람

<u>방언형</u>	<u>표준어</u>
븃름	바람
셋븃름	동풍
놉새	동북풍
하니븃름	북풍

놉하니	북동풍
을진풍	동남풍
마폭름	남풍
갈브름	서풍
서갈브름	서남풍
바룻	찬기류

10. 음식(飮食) · 행사(行事)

<u>방언형</u>	<u>표준어</u>
양석	양식
곤밥	쌀밥
짐치	김치
츄래	반찬
승키	채소
둠비	두부
바룻궤기	바닷고기
식개태물	제사음식
지름	기름
솔펜	쌀가루로 만든 반달 같은 떡
제펜	쌀가루로 만든 찢떡
중괘	네모난 지진 떡
약괘	직사각형 지진 떡
상제	상주
부지	부주
고렴(고령)	조문
궤슴	감, 재료

잔치ㄴ슴
출래ㄴ슴
주시
지름주시
떡ㄴ슴

혼수감
반찬감
찌꺼기
기름찌꺼기
떡재료

11. 형용사

방언형

코시롱하다
쿠시롱하다
배지근하다
좁지롱하다
돌미롱하다
돌작지근하다
맵지롱하다
씹시렁하다
밑성바르다
므지직하다
새판지롱하다
해심상하다
얼랑핀칙하다
애록하다
솔찌다
므르다
ㄴ늑롱하다
좁지렁하다

표준어

고소하다
구수하다
고기의 깊은 맛의 표현
짜다
달큰하다
달콤하다
맵다
씹쓸하다
밑살스럽다
모질다
태연하다
태연자약하다
찬란하다
더럽다
살찌다
마르다
가느다랗다
자그마하다

12. 기 타

방언형	표준어
몽그라먹은 놈	막 굴러 먹은 놈
뒤여질 놈	죽을 놈
벼락맞아 되갈라질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되싸질 놈	죽을 놈
즌동모리 후러불카	옆구리를 때릴까
불탁머릴 미리불카	따귀를 칠까
ㄹ라불키여	말해버리겠다
데우데겨버려	비틀어 버려
심어오라	잡아 와라
요호르긴 두렁청첸	요전에 얼떨떨해서
돛거레	돼지 우리에 검질을 넣어 돼지분과 섞은 후 썩혀 만든 거름
편찍해여싱게	멸짱 하였네
ㅁ실	마을, 나들이
외우 ㄴ다	왼쪽 오른쪽
독생기	자갈
지들커	땀감
너버기	넓이
지력시(질이)	길이
무기	무게
몸피	부피
지들낭ㄹ슴	땀감 재료

民 謠

차 례

- | | |
|--------------|------------|
| 1. 방아짚는 소리 | 4. 김질메는 소리 |
| 2. 구덕 흥그는 소리 | 5. 출비는 노래 |
| 3. 사땃소리 | |

조사 당시 날씨가 무더운데다가 가시리의 주 작물인 더덕, 당근 등의 파종과 김매기 작업 등으로 한창 농번기라 거동이 가능한 노인분들은 모두 들일을 나가신 터라 제보자를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노인분들이 "새콜방에 동당동당~"처럼 한 두 구절씩 부른 것이 있었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해 파악하기 힘들었다.

1. 방아짚는 소리

가시오름 강당장집이 새콜 방에 쉼 글럼서라
가시오름 강당장집이 항시 재화 나젠 허난
벗긴 개가 뽕뽕 뽕뽕 트든 닭이 꼬끼오 울고
그슬린 듯이 달음을 달고 앓힌 솔이 걸음을 견네.
가시오름 강당장 집이 새콜 방에 쉼 글럼서라.
고생 곳은 이 내몸이 가나

예셋골 방에도 쉼맞아 간다.

제보자 할아버지는 성함을 밝히기 싫어하셨고 여러 번 청하여 민요의 배경설화와 함께 직접 부르시지는 않고 가사만 이야기 해 주신 방아쥘는 소리이다. 가시리에서는 어느 어른을 만나도 “가시오름 강당장집 쉼 글럼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소를 많이 치던 강당장 집이 어떤 연유로 인해 소가 전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듯 하다.

2. 구덕 흥그는 소리

자랑 자랑 자랑 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우리 애기 재와 도라 느네 애기 재와주마
어진이도 자랑아 자랑아
어진이도 자랑아 자랑아

[제보자:어--- 울지말라 어진이 어 --자랑자랑- 어-- 쉬-- 쉬--]

똥이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근저둥아 자랑아 옥저둥아 자랑아 어서도 자랑아

[제보자:어-할마님손지 이거 다시 혼번 빌어줘사크라. 어--저들지 마라 어--기여 기여 기여 어-- 할망 손지 쉬---어 -- 어 --기여 기여 어진이 다시 혼번 야이 닛 더 들여저사크라. 어당행 저들암서 어떻해영]

자랑자랑 자랑자랑 자랑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똥이자랑
할망손지 자랑아 자랑아 자랑아 어서도 자랑아

[제보자:(소리지르며) 줌줍해라이 느네, 아기 줌 아이 잠져게 그 마덜 웨지 말라게 아기 줌자게게]

무신 경 하영 말 곧지 말라 아기 줌 아이 잠시네게

어진이도 자는 것도 잠소리요 노는 것도 늙소리요
금저등아 자랑아 옥저등아 자랑아
어진할망 애기 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제보자:(콘테이너를 어르며) 어-- 진다 어--진이, 기여 기여 기
여 어진이 젓주주 마, 젓주주 어진 할망 애기 젓주주]
뽕이 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뽕이자랑
자랑자랑아 어서도 자랑아 어서도 자랑아
[제보자:어-- 질다 기여 기여 좀 자라이. 어--착해라, 어-- 착해라
어--쉬--마--어, 좀 그만자켄]
[조사자:아, 잘하시네예, 이런 노래 저 어디서 배우신거 마씨? 그
냥.]
[제보자:우리 이거 실물로 해 난거. 나가 직접 해난거]
[조사자:아, 그냥 쪽 들으면서 크신거 아니예?]
[제보자(다른 할머니):그 애기 이래 줘서 나 낄앙 앓게]
[조사자:거 말고예, 또 다른 노래들 있잖아예,]
[제보자:나 지금 목 막 어떻게 곤지로완 못허켜]
[조사자:막 크게 안하셔도]
[제보자:곤다 난, 저 무신거 물 먹단 살레 들언게. ㄹ끼연]

3. 사땃소리

아---아아 아---양, 어헤---헤--양 어---허요,
(이하 후렴구는 주위 다른 할머니들도 제창함)
저차---소-리--앞명에 들어온다.
아---아아 아---양, 어헤---헤--양 어---허요,
어기여차---소--리-- 뒷 명에 나고 가라.
아---아아 아---양, 어헤---헤--양 어---허요,

[제보자: 좋~다]

들어---오--라-아--- 앞---명에 들어오라.

[할머니들: 아~좋다~~아~]

간다간다 나는 간다 검질 매레 김 매레 간다.

(농기구를 챙기며 밭으로 가심)

얼씨구 얼씨구 어쩔시구 아니 놀지는 못허리라----

마을 어귀 풍낭 아래서 더덕밭에 검질을 매시다 쉬러 오신 송화
자 할머니를 통해서 채록한 민요이다. 비교적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
긴 했지만, 갑자기 노래를 불러주기란 쉽지가 않았다.

4. 검질매는 소리

아 아 아하야 예헤야 어허요

검질짓고 골넓은 밭에
고분세로 여이명 가자
요밭이랑 멩가나 줍서
한라산 중허리에 비 돛숙지고
칠성ㄴ치 버러진 접근
달월ㄴ치 모다 듭서

산도 좋고 물도나 좋고
우리네 집네 사랑도 좋고
앞명에야 들어나 오라
뒷명에야 나고나 가라
해다지고 날저문 날에

골목골목 연기만 난다
초롱초롱 청사초롱
불 밝힐 줄을 왜모르느냐

5. 출비는 노래

어~~
아이고 일기도 건들건들 불어오는게
출이나 허염지기 하니북름만 부는구나
어-야 흥애기로그구나

이삼일만 날시도 조암시라
요 출 다 비영 무껍놀게
어-야 흥애기로그구나
산천초목은 나날이 젊어오고
우리 인생은 나날이 늙어지는구나
어-야 흥애기로그구나

어화청춘 농부들아
젊은 때에 애써 일하라
어-야 흥애기로그구나

초을 날씨는 북풍만 불어와시민
초출일기는 저절로 된다.
어-야 흥애기로그구나

說 話

차 례

- | | |
|-------------|-------------|
| 1. 가시오름 강당장 | 3. 독마루와 오마루 |
| 2. 케야동산 | 4. 남선비 |

1. 가시오름 강당장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 일이다. 가시오름(가시리)에 강당장이 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부근 일대의 밭이 모두 그의 것이어서 남 이 밭을 밟고 걷는 일이 없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들이 여러채가 있 어서 비복(婢僕)을 갖추었을뿐 아니라 황소가 일백두나 되어 가축 으로도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강당장은 제가 하고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안되는 일이 없었고 부러울게 없었다. 그러나 단지 소원이 하나 있다면 타는 말(승마용) 일백필을 갖는 것은 잘 되지가 않았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부 룡이(황소) 일백두는 쉬워도 타는 말 일백필은 어렵네”하는 탄식 뿐이었다.

강당장이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지독한 구두쇠라는 이유가 있었 다. 강당장은 재산이라면 손톱의 물조차 아니내려는 위인이어서 거 지에게 쌀 한줌 주는 것조차 아까와 했다. 그래서 기발한 고안을 하나 해 내었다.

그는 마당에 허벅(물동이)을 놓고 그 속에 좁쌀을 반줌 넣어 두었다.

걸인이 오면 강당장은 대청에 앉아서 “저 허벅 속의 좁쌀을 마음대로 쥐어내어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허벅은 부리가 좁은 관계로 손을 펴면 수월하게 들어가지만 좁쌀을 쥐고 꺼내려면 주먹이 걸려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걸인은 허벅 속의 좁쌀을 쥐었다가도 결국 꺼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 광경을 보며 자기의 기발한 사고를 흐뭇해 하곤 하였다.

어느밤 육지에서 어떤 중(승려)이 시주를 얻으러 왔다.

강당장은 대청에서 친지들과 한담(閑談)을 하다가 “그 허벅속에 좁쌀이 있으니 마음대로 가져가라”하였다. 중은 허벅속에 손을 집어넣어 좁쌀을 쥐어내려 했지만 주먹을 쥐니 꺼내지 못하고 빈손만 꺼냈다. 몇번 되풀이 해봐도 꺼낼 도리가 없었다. 중은 몹시 고약하게 생각하며 강당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강당장은 늘상하는대로 ‘부릉이 백두는 쉬워도 타는 물 백필은 어렵다’는 말을 친구들에게 하고 있었다.

중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빈 손으로 돌아섰다.

강당장집을 나서는 중은 이런 부자는 기를 꺾어줘야 하겠다고 생각하며 동네를 나오다보니 큰 부자가 날 묘소가 하나 있었다. 풍수지리에 능한 이 중은 이 묘가 강당장네 선묘임을 알아내었다. 중은 묘 곁에서 잠시 궁리를 하다가 사람이 걸을 지나는 기회를 보아 무심코 중얼거리는 척 했다.

“허 그것참 산이 좋긴 좋아 부자가 나겠다면은 자릴 잘못 앉았구나. 부릉이 백두는 해도 타는 물 백필은 어렵겠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이 말은 곧 강당장 귀에 들어갔다. 강당장은 펄쩍 뛰었다. 곧 노복(奴僕)들을 풀어 그 중을 찾아 오라고 하였다.

“이만하면 나를 찾겠지”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은 강당장 앞에 불리어 갔다.

“소승 뵈웁니다.”

“아, 어서 올라앉아라”

“소승은 밝이 좋습니다”

“그대는 지리를 잘 아는가?”

“예 소승이 뭘 알겠습니까”

“들으니 아까 우리 선묘를 보고 타는 물 백필은 못하겠다고 하였
다는데 사실인가?”

“예, 소승의 눈에 그리 뵈웁니다.”

강당장은 지리에 능한 중을 만난 것을 크게 기뻐하고 타는 물 백
필까지 할 수 있는 묘자리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중은 겸손해
하며 묘자리 하나를 골라 주었다.

강당장은 타는 물(말) 백필이 문제 없다는 말에 곧 그곳으로 이장
을 했다.

그런데 이장 장시에 마지막으로 관을 드러내자 이상하게도 그곳
에서 청비둘기 두 마리가 나와 하늘로 날아 올랐다.

그 자리에는 가시리에 처음 입주한 경주김씨가 즉시 집을 지었는
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번영(繁榮)을 누리고 있으나, 이장을 한
강당장네 집엔 흉사(凶事)가 겹치고 불화가 끊이질 않아 날로 가세
가 기울어져 가더니 마침내 망하고 말았으며 지금은 그 직계후손도
대가 끊겼다고 한다. 〈제보자: 정태원(남·81세)〉

2. 궤야동산

표선면 가시리(加時里) 마을에서 서쪽으로 200m 쯤 가면 ‘괴야’
라고 불리는 굴이 하나 있다. 지금은 굴이 막혀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 무척이나 긴 굴일 것으로 보인다. 그 굴은 이 마을 오군위
(吳軍威)씨 선조들이 막아 버렸는데, 거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전

해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여년전 오씨가문에 장사(葬事)가 났다. 지리에 능한 풍수를 청해다가 묘자리를 잡았다 그곳이 괴야동산 앞자리다. 장례를 치르는데 뒷편에 있는 괴야(동굴)을 가리키며 풍수가 상주를 불러놓고 물었다. “저 괴야 입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괴야입구는 사람이 능히 출입할 수 있을 정도였다. “보기에 흉하다 생각되면 입구를 막아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게 좋겠다”고 하였다. 상주는 풍수의 말을 듣고 유심히 동굴 입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상주의 심중에는 무슨 괴물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상주는 풍수에게 “보기가 흉하니 막아 버리는게 좋겠다”고 하였다. 풍수는 그러면 상주의 마음대로 입구를 막으라고 일렀다. 역사(役事)꾼들은 상주의 뜻대로 괴야의 입구를 막았다. 그런데 풍수는 혼잣말처럼 “음, 이 묘자리에서 저 괴야는 창고이며 보고인데, 그러므로 큰 부자가 나서 수 대에 이어갈 것인데 아깝도다.” 했다.

이 말을 들은 상주는 풍수에게 “아니, 진작 그렇다고 알려주지 않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그런 말을 하면 괜히 헛수고를 한 것이 아니냐”면서 지관에게 다시 굴을 파면 어떻겠느냐고 물으면서 다시 허물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관은 풍수는 이미 끝난 일이며 상주가 죽을 액을 당할 것이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 다시 입구를 허물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게 아니며 이것은 천운(天運)이니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손은 많겠으며 대대로 먹고 사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마을 오씨 집안에는 만석군 같은 부자는 없지만, 자손은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 한다.

3. 독마루와 오마루

갑선악이라는 오름이 이처럼 불리게 된 것은 옛날 풍수들이 번데기가 꿈틀거리는 형태라 하여 지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갑선악 동북쪽에는 독마루가 있고 그리고 갑선악 서남쪽에는 오마루가 있다. 이것은 풍수들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계지(鷄旨, 독마루), 까마귀가 앉아있는 형국이라 하여 오지(烏旨, 오마루)라 부르게 된 것이다. 북쪽에 있는 닭과 남쪽에 있는 까마귀가 가운데 있는 번데기를 놓고 서로 제가 먹으려고 노려보며 견제하고 있는 격이라고 한다.

또는 독마루는 남쪽에 있는 매봉이 마주 앉아 있기 때문에 닭은 동지를 떠나지를 못하고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하기도 한다.

4. 남선비

남선비가 첩을 두었는데 집에 들어온 그녀는 정실 부인행세를 했다. 남선비의 일곱 아들 중 여섯아들은 우둔했으나 막내는 총명했다. 첩은 정실부인이 낳은 아들마저 죽이기 위해 아파 죽어가는 척했다. 그리고 남선비에게 점집에 가서 자신을 살릴 방법을 점지어 오라 했다. 남선비가 점쟁이에게 물으니 아들 7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는다고 했다. 첩은 짐짓 “어찌 아들들의 간을 내어 먹느냐”며 다시 점을 쳐오도록 했다. 다시 점을 쳐도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막내가 “아버지가 어찌 저희 7형제의 간을 내겠습니까. 제가 형제들의 간을 내어와 어머니께 드린 뒤 차도를 보고 아버지가 제 간을 내십시오”라고 말했다. 일곱형제가 울며 산에 오르는데 산돼지 일곱마리가 보였다. 막내는 형들을 숨기고 산돼지 6마리의 간을 내어 어

머니께 드렸다. 첩은 막내를 나가 있으라 하고 간을 초석 아래 숨겨다 먹은척했다. 문 뒤에서 그 공경을 지켜본 막내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이를 잡아드리고 죽겠다”고 했다. 첩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가선 막내는 자리도 치워드리겠다면서 초석을 건어냈다.

막내가 형들을 불러 첩의 농간을 보여주자 첩은 도망가다 정낭에 걸려 죽었다. 첩의 시신은 갈기갈기 찢어져 손톱은 ‘굼벵이’가 되고, 엉덩이는 ‘물 문주리’가 되고, 나머지는 모기가 되었다.

信 仰

차 례

- | | |
|----------|----------|
| 1. 마을 신앙 | 3. 세시 풍속 |
| 2. 무속 신앙 | |

현재 가시리에는 불교사찰이 없고 교회는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도사업을 벌이고는 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공인종교로서 깊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불교신자는 193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하여 1970년대부터 점증하여 15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와 달리 기독교는 1980년대초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 현재까지 전도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불교와 무속신앙에 비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교신자의 경우 이 지역에 사찰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마을신앙과 무속신앙에 의지하고 있는데, 남자는 마을신앙인 포제를 지내고 여자는 당에 가서 제를 지내는 것으로 나뉘어진다.

1. 마을 신앙

농사와 가축을 생활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자연의 변화 무쌍한 조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태풍이 호우를 동반하여 휘몰아

치는가 하면 농토가 짹짹 갈라지는 가뭄이 닥치고 호열자 같은 급성 전염병이나 질병들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묘연하기만 했다. 그러므로, 이 공포와 절망의 시련을 신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천신, 사지신, 조상신, 또는 당신에게 가정의 안녕과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올림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정초(正初)가 되면 마을의 온 정성을 모아 포제단에 나가 제물을 차려 놓고 천지신명에게 기원했으며, 오늘날도 그 유품이 전해지고 있다.

1) 포제

정월이 되면 상정일 또는 해일(자시)을 택하여 유교식의 마을제를 지내니 이것을 포제라 한다. 포제는 제일 3일전에 제관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녀자들의 제장 출입을 금하며 깨끗하지 못한 주민은 출입을 삼가는 등 온마을의 정성을 모은다.

또한 포제의 경비 등은 제미(祭米)라 하여 부락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쌀 몇되씩을 모았다.

제단과 그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며 제관들은 제장에서 예행연습을 하고 제물 등을 정하여 이사유무를 확인하여 제를 준비하였다. 포제단은 오래전부터 설오름에 마련되어 있으며 안좌동은 따로 제단을 마련하여 포제를 행하였으나 지금은 함께 포제를 지내고 있다.

① 포제축(酬祭祝)

모년 모월 모일 ○○○ 은 감히 고하나이다.

높고 맑은 신령님께서 관장하시는 이 지역의 백성들을 보필하시어 괴이한 일이나 병고에 시달리는 일, 소나 말이 죽는일 등을 막아 주십시오. 오직 신령님의 높으신 덕을 베푸시어 모든 질병을 멀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가축들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곡식은 구슬같이 영글고, 과실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의 면학을 도우시어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재앙은 가고 화기가 솟아나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삼가 정성을 다하고 예주와 회폐로 신령님께 천신하오니 흠양하옵소서.

② 진설(陳設)

망요위(望燎位)

포신지령위(酬神之靈位)

폐帑(幣帛)	도(稻)	쌀(粱)	
축(祝)	직(稷)	양(梁)	
	잔(盞)	잔(盞)	잔(盞)
모혈(毛血)	녹포(麋哺)	녹해(鹿髓)	어수
과실(果實)	담해(鼈髓)	청저(靑菹)	근저(芹菹)
과실(果實)			모혈(毛血)
	회생(犧牲)		과실(果實)
	축(燭)	향노(香爐)	축(燭)
	독축(讀祝)	향합(香合)	

구취문(俱就門)

2) 기우제(祈雨祭)

가시리는 예로부터 깊은 샘이 없어 하천과 못 등의 물에만 의존하여 왔다. 그러므로 가뭄이 극심하면 식수를 얻기 위해 샘물을 허벅지로 운반해야만 했으며 우마의 급수를 위해 솔내나 가메물 등으로 물이 있는 곳까지 가야만 했다. 또한, 모든 농작물은 말라죽게 되고 주민들은 하늘만 쳐다보며 비가 내리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한다.

이러한 천재를 당하게 되면 마을에서는 포제때의 의식처럼 온 주민의 정성을 모아 마을외부의 깨끗한 야산에서 천지신에게 “어서 배를 내리시어 힘없는 백성들의 목을 적시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한 축문을 올리고 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기우제와 축문 내용은 포제와 다르게 그 기록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2. 무속 신앙

당신이란 제주도의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당에 모셔있는 신으로 주민의 생활을 수호하는 신을 말한다. 이를 본향, 또는 본향당이라고 하며 마을의 주인과 같은 신이라고 한다. 가시리의 본향당은 구석물당이다. 이 당신은 옛부터 부녀자들에 의해 모셔져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당에 대한 구전이나 정설이 없는 것은 거의 남성이 아닌 부녀자들에 의해 주관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전지역의 마을마다 심방이 수명씩 있어 각 마을의 본향당에 메인 심방이 한사람씩 정해져 있으나 현재 가시리에는 단 한 사람의 심방도 없다. 20여년 전까지는 무당이 있었으나 그가 죽은 후 전승자가 없어 지금은 남원읍 신흥리의 무당을 빌어 제의를 맡기고 있다.

1) 구석물당

위 치 :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수석물 위쪽

가시리 본향당 ‘구석물당’의 당신은 ‘구석물 열뇌화주삼천백매또’이다. 당의 제일은 정월 그믐, 6월 7, 8일 11월 7, 8일이고, 당에 갈 때는 메, 백지, 물색, 실 등을 가지고 간다. 당은 우측에 제단과 돌담이 마련되어 본향당신을 모시고 우측 바깥 신목에 지전물색이

걸려 여신을 일뤼당신을 모시고 있는 동당이좌형의 당으로 남신은 송당 당신계의 산신이고 밖에 모신 여신은 토산리에서 갈지 갈라다 모신 토산계의 일뤼할망인 듯하다. 당은 신목형·천변형·제단형·석원형·지전물색형이며, 매킨심방은 신흥리 고수동에 사는 김월선 씨이다. 가시리 주민들이 다니며 오씨가 상단꺾이다.

당 명	가시리 본향당, 구석물당	신 명	구석물열녀화주삼천백매또
신위(神位)	1위	축 일	정월 그믐, 6월 7·8일, 11월 7·8일
신체(神體)	신목(神木)	축 물	메, 백지, 실, 물색등
성별(性別)	남신(南神)	기 능	생산·물고·호적·장적
당건조형태	신목형·천변형·지전물색형·제단형		
매킨심방계보	김월선(신흥리 광동)		

① 제일

대부분의 당제일이 정초인데 반하여 가시리 구석물당 제일은 음력 정월 그믐날이다. 이 날은 마을의 부녀자들이 정성들여 차린 제물을 지고 간다. 이 날을 위하여 3일전부터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성을 다하여 특히 육식을 금기하는 일은 대단하여 마을의 모든 가정에서는 물론 식육점 등에서도 3일전부터 돼지나 소의 도살이 일체 금기되는 등 온 마을의 정성이 모아지고 당제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음력 6월 7·8일, 9월 5일, 11월 7·8일 등에는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기원한다.

② 제물

제물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차려지며 메, 돌레떡, 과일, 쌀실, 물색형꺾, 생선, 감주 등을 차린다. 그외 액막이에 쓰일 장독(수탁)과 멍쇠돈도 준비한다. 이러한 제물을 차릴 때 부녀자들은 정성을 다하며 부정한 것을 피하고 몸을 깨끗이 한다.

③ 제의

일반적으로 당을 찾았을 때는 먼저 제단에 제물을 진설하고 심방이 요령을 흔들며 축원한다. 이것이 끝나면 당걸이(형걸, 실, 백지 등)를 신목에 매어단다. 이것을 인정건다고 한다. 제의는 가정의 일년운세를 점치기도 하고 마을 전체의 운을 말하기도 한다. 액막이는 일반 행사가 끝난후에 행하여 진다.

④ 신봉자

당제에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참여하고 남자들은 제의에 참여치 않는다. 여기에 참여하는 자를 “단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것은 “단궐”을 일궈줌이다. 가시리에 본적을 두어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정월 그믐날에는 본향을 찾아와 축원을 드리고 있다.

2) 안좌리 본향당

안좌동 본향은 소꿉지당이다. 안좌름이 설촌된 후 정씨가 입주 정착하게 됨에 소꿉지에 당을 만들고 안좌리 마을에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본향당으로 발전하였다. 이 당에서 행하는 제의는 구석물당과 같으나 제일은 음력 9월 8일이다.

당 명	소꿉지당	신 명	하로산또
신위(神位)	1위	축 일	1월 8일, 8월 8일
신체(神體)	신혈(新穴)	축 물	메 2(사발메 1, 보시메 1)
성별(性別)	남신(男神)	기 능	생산·물고·호적·장적
당건조형태	신혈형·지전물색형·제단형·천변형		
매인심방계보	남원 고수동 강씨 → 강씨의 처 조씨 → 며느리 → 딸 강금춘(남편 최상근)		
당의 특징	안좌동 본향, 물당할망의 남편.	단궐(信仰民)	안좌동 주민

3) 당남우연과 문씨할망당

위 치 : 남계주군 표선면 가시리 안성수씨 과수원 당남우연

가시리에는 본향당에 당남우연 할망이란 별개 당이 있다. 이 당이 소재한 곳이 당남우연이라서 당남우연할망이라 하는지 이 당이 소재하므로써 당남우연이라 불리어 왔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곳에 모셔진 신은 문씨할망이라 알려지고 한편 허물할망이라고도 불리워진다. 허물할망이라 불리는 것은 허물(종기, 피부질환)로 고생하는 경우 그곳에 가 기원하면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하여 불려진 이름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곳을 찾는 사람은 축(丑)일을 택하여 제물을 차리고 혼자 축원을 드리기도 하나 사정이 심한 경우는 심방을 청하여 함께 나가 축원을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丑日할망당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당 명	문씨할망당, 축일당	신 명	문씨할망, 축일할망, 허물할망
신위(神位)	1위	축 일	
신체(神體)	신목(神木)	축 물	매 2, 계란
성별(性別)	여신(女神)	기 능	종기, 피부병
당건조형태	신목형 · 지전물색형 · 석 원형		
매인심방계보	없음	단골(信仰民)	가시리민 일부
당의 특징	축일날 아침 혼자가서 기원하는 개별기원의 당		

4) 일뤼당(7일당)

일뤼당이란 그 제일이 7일 · 17일 · 27일이어서 일뤼당 또는 일뤼할망이라 부른다. 가시리 남쪽에 일뤼당 머체가 남아 있어서 예전에는 일뤼당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1940년대까지도 이곳에는 당의 흔적이 있었

고 지금은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3. 세시 풍속

元旦: 음력 정월 초하루 명절은 친족들이 전부 모여 친족집을 돌며 조상에 제사를 올린다. 친족 집으로 나가기 전에 아침 일찍 자기 집안의 조상을 모시고 상을 차리고 세배를 올린다.

조상에 대한 세배가 끝나면 집안 어른들에게 차례로 세배하고 떡국만 먹고 친족집으로 명절 차례를 보러 나간다.

立春: 입춘은 절기상 봄이 시작이라는 뜻이며 음력으로 정월절이다. 가시리에서는 이날을 “새철드는 날”로 알고 입춘점을 써 붙이고 토정비결을 보아 1년의 길흉을 알아보며 옷놀이 등을 한다. 이날은 금기사항이 많았다. 그 예로 부녀자들은 외부출입을 삼가고 언행도 조심해야 했다. 이날의 사소한 실수는 1년 내내 그 실수를 범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농기(火入): 음력 2월이 되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목야지나 목초지 등에 불을 놓기 시작한다. 우선 조림지의 주변을 주민이 동원되어 바람이 없는날 방화선 구축을 화입으로 한다. 너비 10여 미터의 폭으로 양쪽으로 불을 지르고 밖으로 번지지 못하게 꺼가며 조림지를 주회한다. 이러한 방화선을 한 다음은 목초지, 공동목장 등에 불을 놓는다. 가축의 해충인 진드기 등이 월동한 것은 타 죽이고, 억새, 고사리 등 시든 잡초를 불태움으로써 봄에 싱그러운 새 목초가 돌아나게 하기 위하여 매년 행해져 왔지만 1950년대부터 화입

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닭 잡아 먹는날: 음력 6월 스무날은 닭 잡아 먹는 날이라 하여 집집마다 닭을 잡아 먹는다. 이날에 닭을 잡아 먹으면 보약이 된다 하여 해마다 기르던 닭을 몇마리씩 잡아 온 식구가 푸짐하게 먹는다. 봄 농사의 농번기에 지쳐 있는 기력을 이때쯤 한가한 틈을 타 몸보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한다.

묘제(墓祭): 음력 3월이면 가정에서 6대조 이상 제사를 모시지 않는 선조조상의 묘에서 자손들이 모여 제사를 모신다. 일자(日字)는 각 집안마다 일정한 날을 정하여 행한다.

초경(初耕): 정월초에 봄갈이(겨울에 묵혔던 밭을 갈고) 또는 새왓이나 따비밭을 갈던 풍속을 말한다.

방장: 위(危)막의 일종으로 어린애들의 「마마」를 앓고 나서 두 일레가 되면 심방을 불러다 배송비념을 한다. 메쌀, 돈, 과일 등과 그외 유색포 조각을 올리고 주문을 외우며 빈다. 기원이 끝나면 미리 준비해둔 채롱에 떡, 돈, 과일 등을 담아놓고 네귀에 대나무를 꽂고 색포조각을 매어 달고는 이 밤(夜)과 저 밤 사이(자시쯤)에 아무도 모르게 밭구석이나 하천가에 내다 버린다. 놀던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보면 부모님의 주의사항도 아랑곳 없이 「방장」이라고 돌을 마구 던져 박살을 내곤 하였다. 심지어는 돈이나 떡을 먹어치우기도 하는 개구쟁이도 있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이런 「방장」은 사라지고 없다.

추렴(出斂): 계원(契員)이나 이웃이 모여 일정금액을 거두어 돼지

나 소등을 잡아 고기를 나누어 먹는 풍습으로써 농번기의 일이 어느정도 끝났을 때 농사일로 지친 피로를 풀고 몸보신을 위하여 추렴하는 경우가 있고, 명절시의 제례에 제수용으로 쓰기 위하여 추렴이 많이 행해졌다. 추렴시에는 반주가 따르게 마련이어서 흐뭇한 시간을 갖는다. 돼지 추렴인 경우 「통시」라 불리우는 변소를 겸한 돼지우리에서 기르던 돼지를 “한숫내기” 또는 “두숫내기”로 중량을 어렵하고 흥정을 한다음 돼지를 잡으면 뼈채로 대금을 정하고 뼈채 갖다 먹는다.

개역: 개역이란 보리를 술에 볶아서 맷돌로 갈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써 보리를 수확하면 이 개역을 만들어 먹었다 물에 타거나 밥에 비벼 먹었다. 그러나, 가루음식은 소비가 많은 음식으로 관념되어 왔으므로, 속담에 “한들에 개역 세 번 저배기 세 번 호민 망한다”라는 말이 있다. 가루음식은 낭비가 많으니 되도록 삼가라는 말이겠지만 보리수확이 끝난 직후 장마기에 비가오는 날은 개역이나 해먹을까 하고 만들어 먹었다.

이 풍속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져 흔히 만들어 먹고 있다. 개역에는 보리개역 외에 콩개역이 있으나 콩개역은 주로 떡을 만들어 무치거나 떡 속에 넣었다.